

하루를 시작하며



김 윤 미
시인

길을 나서면 안개가 먼저 다가온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내력/ 지상의 열린 틈마다 안개가 스며들고/ 사람들은 한변쯤 기침을 호소한다./ 새들은 노래하지 않으며/ 길은 늘 젖어있다.

최재영 시인의 '안개' 중 일부이다. 올해는 장마철보다 안개철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만큼 안개가 내내 풍경을 덮고 있었다. 안개 사이로 비가 지나가고 안개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길 반복했다. 해의 뜨고 집도 집작할 수 없는 안개의 장막 속에서 꼭

여름 한 복판

꼭 닫아둔 창틈으로 스며든 안개가 온 방안에 짙적 달라붙어 몸도 마음도 녹녹한 날들이었다.

영영 견히지 않을 것 같은 안개가 어느 날 스르륵 소리 없이 사라지니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장마철도 지나갔다. 이제 몸도 녹일 것 같은 태양이 이글거리는 여름 한 복판에 들어섰다. 추위가 움츠러든 아uge 쫘꿍 싸매는 겨울지나 잠시 찬란한 봄을 마주하니 어느덧 모든 땅을 적시는 비가 내리고는 무더위가 코앞에서 이글거리며 쳐다본다. 그리고 보면 일 년은 긴 것 같지만 사계절은 신비로우면서도 사람의 마음만큼이나 변덕스럽다.

휴가가 주어지는 직업을 가져본 적 없는 나로썬 여름은 무기력해지지만 더 분주한 계절이었다. 그늘에 숨어 나른하게 누워있고만 싶은 계절이고 흔들거리는 푸른 잎도 눈부신 햇살에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계

절. 한 때 여름은 체온도 그림자 없이 사람이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계절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그림에도' 소중한 사람을 돌아보고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가장 뜨거운 여름에 휴가철을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혼자만의 집착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제주에 와서 바다 가까운 곳에 터를 잡고 난 후 가장 생기 가득한 여름 바다를 보았다. 바다는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의 놀이터로 제 품을 내어주는 듯 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한쪽에서 파도를 타는 서퍼들은 여름의 자유로움을 만끽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하는 마음이 아닌 여름을 기다려 온 간절한 보람인 듯 활기가 넘쳤다.

뒤돌아보니 가장 무르익어 생동하는, 절제라 몸 비틀어/ 진초록 한껏 뻗는다 [중략] 창문을 열이라/ 찌든 마음도 열이라

야를 확장시킨다. 만개한 꽃은 집을 향기로 밤을 부르고 나무는 햇살을 온 몸으로 흡수해 열매를 익히고 때미는 요란스럽게 여름을 노래한다. 모든 만물이 살아있음의 증거를 표현하니 땀방울 흐르는 내 몸도 덩달아 살아있음을 깨닫게 된다.

물론 변덕스런 여름 날씨만큼이나 사람의 마음도 간사하여 뜨거운 햇살에 눈을 찌푸리고 살갗에 들러붙는 덥고 습한 공기에 대상이 없는 짜증이 불췌 튀어나오기도 하겠지만 어쩌겠는가. 우리는 살아있고 살아있으니 또 여름 한 복판인 것을. 존경하는 고 조태일 시인의 시집 '흔사 타고르고 있었네' 중 '여름날'이라는 시를 한자게 읽으며 오늘도 여름의 한 낮을 지나간다.

햇살, 눈 시리도록 쏟아진다/ 초목들, 질세라 몸 비틀어/ 진초록 한껏 뻗는다 [중략] 창문을 열이라/ 찌든 마음도 열이라

뉴스-in

제2공항 TV토론회 일정 실무협의 진통

6일 만남서 결론 못 내려

○…제주도와 제2공항성산읍반 대책위원회, 제2공항반대범도민 행동은 6일 오후 제주시내 모처에서 만나 제주 제2공항 TV토론회 일정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의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산회.

토론회 세부 일정 조정과 방송 채널 결정 등의 부분에서 진통 여전. 제주시도는 “7일 오후 다시 만나 재논의할 것”이라며 “상호 존중하는 과정이며, 신중한 결정을 위해 미루게 됐다. 확정되는 대로 도민에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

이소진기자

신임 안전실장 신고식(?)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와 9호 태풍 ‘레기타’가 잇따라 북상하면서 가장 긴장했던 제주도 도민안 전실이 직접적인 피해 없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도의 한숨.

특히 ‘프란시스코’가 지난 2일 오전 9시 발생하면서 신임 안전실

장으로 내정됐던 양기철 실장이 호된 신고식(?)을 예상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6일 현재까지 기우에 그칠 전망.

도청 안팎에선 “아직까지 유동적 이지만 2개의 태풍이 제주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양 실장의 데뷔전은 위망급 수준으로 일단락 될 것 같다”고 예측.

조상윤기자

학생인성 예절교육 진행

○…탐라교육원이 학생인성에절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

탐라교육원은 교육계와 청소년분야 전문가, 학부모단체 대표 등 각계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2019 전반기 학생인성에절 교육 프로그램 편성 자문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강사 구성 방향 등에 대해 논의.

탐라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

표성준기자

사설

수출기업 경쟁력 높일 중장기 대책 필요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경제전쟁에 돌입하면서 국내 산업계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대상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서 화학 기계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기업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벤처기업 10개 중 8개 이상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놔냈습니다. 그 골자는 일본의 수출제한 3개 품목을 포함한 100개 전략품목을 국산화해 5년내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제주도도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화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

선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전담TF팀과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다변화 정책이 추진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대응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은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 뿐만 아니라 수입 규제도 또다른 보복조치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주 농수산물도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예입니다. 향후 한·일 양국 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해 농수산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일반기업도 파악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계기로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지방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정차 뺑소니’ 방지법의 개선방안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물적피해를 입히고 사후 조치도 없이 달아나는 일명 ‘주·정차 뺑소니(물피도주)’ 방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차량을 주차했다가 차량 측면에 짙은 회색 페인트가 묻어나는 이른바 ‘문 콧’자국을 봤을 때 모든 운전자는 화가 치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물피도주로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신고건수만 1만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017년 3436건, 2018년 6009건, 올해 7월까지 3257 건 등 입니.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1년 평균 6000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가해 차량을 추적해 적발시 8~1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물피도주사건을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제주경찰 1인당

담당 교통사고 건수는 25.6건으로 전국 평균 19.2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들은 인적 피해 사고를 수사하고 나면 주·정차 뺑소니 등 다른 사건이 수습건씩 쌓여있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하기도 쉽지 않아 경우별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 중 누구라도 부주의 또는 실수로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를 훼손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훼손했다면 피해차량의 차주에게 전화 또는 연락처를 남기는 등 조치를 취해야만 경찰의 사고처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문 콧’사고도 물적 피해라는 인식을 갖도록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개별 운전자의 주차 예절이며 운전자 스스로 조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열린마당

제주 생태 도서관 지향하는 풍낭 작은도서관



강 은 미
서귀포시 풍낭 작은도서관장

무더운 여름, 마을 가까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찾는 건 어떨까. 책을 읽으며 더위를 잊는 것도 좋겠다. 서귀포시 동흥동에 있는 풍낭 작은도서관은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 더위를 피해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풍낭 작은도서관은 ‘제주생태 작은도서관’이라는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제주생태 전문 도서관으로서 신간도서를 제주생태에 관한 책들로 비중을 많이 두었다. 또한 제주 역사, 제주 과학, 제주 문화 등에 관련된 책들을 신간도서로 구입해 비치했다. 최근에는 ‘문경수의 제주 과학 탐험’(동아시아, 2018), 김형훈의 ‘제주는 그런 곳이 아니야’

(나무발전소, 2016), JTP생물종다양성연구소의 ‘제주섬의 보물지도’(한그루, 2018) 등의 도서를 구입, 독서동아리나 독서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풍낭 아래 모여라’라는 이름으로 상반기에는 ‘북카페 예술 공방 품지락’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풍낭 탐험대’를 독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또 꿈다락토요문화학교에 선정되어 ‘할망바당 동시 풍낭’이라는 어린이 동시교실을 진행하면서 어린이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풍낭’은 ‘폭낭’이 원래 제주어 표기이지만 아이들이 발음하기 좋게 ‘풍낭’으로 이름을 지었다. ‘폭낭’은 팽나무의 제주어이다. 팽나무 그늘에 마을 사람들이 모이듯 우리 도서관은 앞으로도 동흥동의 팽나무 역할을 하고자 한다.

풍낭 작은도서관은 서귀포의 생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차별화된 작은도서관이 되기 위해 생태 전문 도서관을 지향할 계획이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정 소식

폭염 발생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보는 등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2019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년 근로자 숙소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임차료(주택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15세~39세 청년근로자에 숙소(주택보조금)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임차료의 60%(또는 주택보조금의 80%) 2년간 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월30만원 / 기업별 5명 ~ 10명)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71)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 2019-1745번을 참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비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층들의 빠른 취업지원
○ 지원대상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만18세~34세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20%이하는 부모 및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현재자매 추가가능)
○ 지원금액 (지원방식):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체크카드 발급하여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매월 1일~20일까지 상시 신청
○ 선정방법
- 신청 대상자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기간,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유사사업 참여여부 여부, 심사하여 배정인원 범위 내 우선순위에 선정
○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064-710-4592~3/4404)

상·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만성적 적자를 해소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해 2019년 10월 납기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에 인상됩니다.
요금 인상률
- 상수도(가정용 평균 5%, 일반용/대중탕용/농수산용 및 산업용 7%)
- 하수도(평균 35%)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 www.jeu.go.kr/jejuwater

제주시정 소식

참사람문화의집 제3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19. 7. 30.(화) ~ 8. 12.(월)
○ 교육대상 및 인원 : 제주시민 290명
○ 교육기간 : 2019. 8. 20.(화) ~ 12. 15.(일) [4개월]
○ 교육분야 : 4개분야 12개과정
- 외국어과정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중국어회화)
- 건강과정 (생활요가, 라인댄스)
- 문화예술과정 (수채화그리기, 문인화, 서예)
- 자기개발과정 (하모니카, 한국무용, 프랑스자수, 스마트폰활용)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순 접수 (http://damoa.jeu.kr 제주평생교육원) *강좌시간 중복없이 1인 2강좌 신청 가능
○ 수강료 : 40,000원 (월 10,000원)
○ 문의 : 제주시 여성가족과(☎728-3957, 3959)

「차타고赫赫 민원센터」 운영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12:00 ~ 13:00 점심시간)
○ 이용대상 : 신청인 본인의 증명서 발급에 한함 (위임발급 제외)
* 신분증에 의해 본인 여부 확인 ▶ 민원신청서 작성 생략
○ 발급대상 : 주민등록등본 등 17종
- 주민등록(4종), 인감증명서(2종), 토지 & 61598:지적(4종), 가족관계(2종)
○ 문의 : 제주시 종합민원실(☎064-728-2109)

제19회 도두 오래물 축제

○ 기간 : 2019. 8. 9.(금) ~ 8. 11(일) [3일간]
○ 장소 : 오래물광장 및 도두항 일원
○ 내용
- 개막식전행행사 : 도교리밴드, 초창가수, 해녀공연, 불꽃놀이 등
- 상시프로그램 : 럭셔리 요트 타고 바다로 가자, 카약 타기 등
- 체험프로그램 : 부스체험 프로그램 등
- 기타프로그램 : 오래물 전국노래자랑, 물고기 맨손잡기 체험 등
○ 문의 :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728-4961)

제주별빛누리공원 휴관 안내

○ 시설명 : 제주별빛누리공원
○ 휴관기간 : 2019. 8. 1(목) ~ 2020. 1월 중
○ 휴관사유 : 제주별빛누리공원 시설(관측실, 전시실, 천체투영실) 개선 사업
○ 휴관내용 : 제주별빛누리공원 전면 휴관
○ 문의 : 제주시 제주별빛누리공원(☎728-8900 ~ 8911)

주간농업농촌소식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2019 제주 감물염색 체험 행사’를 개최하면서 제주시민 및 관광객 대상으로 ‘제주 전통 감물들이기 체험’ 참가자 600명을 사전 모집합니다.

- 모 집 안 내 -

- 행사명 : 2019 제주 감물염색 체험 행사
- 행사기간 : 2019. 8. 16.(금) ~ 17.(토), 09:00~16:00
- 행사장소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감물홍보관 일대
- 계획인원 : 제주시민 및 관광객 등 1,000명
- 주요내용
○ 제주 감물염색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햇살과 바람의 선물 - 감물염색 설치 전(展)
○ 모두 함께 즐기는 길동 패션쇼, 감물 및 천연염색 제품 판매
○ 풋풋한 만들기, 파머스마켓, 향토음식 판매 등
- 제주 전통 감물들이기 체험 참가자 모집
○ 모집인원 : 6회 600명
○ 모집기간 : 인원 마감 시까지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064-760-7821 ~ 7825
- 일정 표

일자	시간	인원	교육 내용
8.16(금)	1회 09:30~10:30	100	제주감물 염색 이해 및 실습(인전 아발)
	2회 11:00~12:00	100	제주감물 염색 이해 및 실습(인전 파자)
	3회 12:30~13:30	100	제주감물 염색 이해 및 실습(인전 아발)
	4회 14:00~15:00	100	제주감물 염색 이해 및 실습(인전 파자)
8.17(토)	5회 09:30~10:30	100	제주감물 염색 이해 및 실습(인전 아발)
	6회 13:00~14:00	100	제주감물 염색 이해 및 실습(인전 파자)

담당부서 : 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760-7821)